

# 닭의 전염성 하리증



한 병 우  
<동아대농대 교수>

우리 나라 기후로서는 6월 7일경의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외기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은 까닭에 모든 미생물이 왕성하게 증식된다. 이때 계사의 환기장치가 잘되어 있지 않고 계분처리나 기타 청소와 소독이 불충분할 경우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실사병이다.

이병에 걸린 닭은 식욕감퇴는 물론 발육부진과 더불어 성체에 있어서는 산란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1. 본병의 발생 및 원인

이 병원체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히 구명되어 있지 않으나 본병의 발생상태나 임상적인 혈액학적 소견으로서 종래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청관병(靑冠病; Blue comb), 혹은 하절병(夏節病; Summer disease), 혹은 약자병(若雌病; pellet disease)과 그 병세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본병은 혈액 중에 단핵백혈구가 저명하게 출현한다고 하여 단구증다증(單球增多症; Avian Monocytosis)이라고 명명한 때도 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본병의 원인을 바이러스설(說)·진진대사설·중독설이 있어 아직 이에 대한 정설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본하리증은 하절의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을 때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2~3월경 날씨가 추운 때도 발생하는 수가 있다.

본병의 감수성 연령에 있어서는 초산시의 약계에 다발하고 또한 발생시 동거 중의 유추에는 감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초산시의 성

체에 감수성이 제일 높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병의 원인을 임상가들이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1. 세균·병독의 감염.
2. 내장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의한 것.
3. 하절의 고온다습지의 음수 과다.
4. 부패 사료를 먹일 경우.
5. 비타민 A와 E의 결핍인 경우.

이들 원인 중 세균 병독과 기생충으로 인한 것이 격심한 피해를 가져온다.

## 2. 본병의 증상

전염성 하리증에 걸린 닭이 나타내는 주증은 실사이다. 실사 초기에는 수양성으로서 대부분이 물과 같은 것을 배설하며 이중에 간혹 회갈색의 고형변과 난백(卵白)과 같은 점조물을 혼합하고 있다. 즉 이와 같은 물똥을 죽죽 배설하는데 하루에 몇 번이고 계속 배설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름철에 간혹 녹색변을 배설하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병성이 악화되어 폐사되는 병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실사를 일으키면 동시에 식욕이 부진 또는 폐절하게 되나 발생 후 1주일을 건디는 닭은 하리도 멎게 되고 일단 증상이 좋아져 회복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발병 극성기에 달하면 계관은 암적색으로 되고 식체증이 오게 된다. 또한 중체에 빠진 닭은 처음부터 원기소침 상태로 식체를 수반하고 식욕이 절폐됨과 동시에 한쪽 구석에 멎하니 서 있어 수면상태로 있다가 3~4일 후에

폐사한다.

본병의 전염성은 매우 강하여 한계사에 발병하면 인접 계사로 전파 만연된다.

사망율은 10~15%인데 사망의 직접 원인은 식체로 인한 자가 증독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은 것 같다.

본병의 경과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발병 후 7~10일이 넘으면 의견상 건강하게 되지만 산란 정지는 뉴켓슬병이나 전염성 기관지염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1~2개월 계속된다.

본병의 혈액상을 조사해보면 일반적으로 본병의 주기에 있어서 단구증가증(單球增加症)을 볼 수 있고 그 비율은 20~40%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설사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배설하는 똥의 형태가 좀 다르다.

1. 푸른 똥 즉 물과 같은 푸른 똥은 여름철의 음수과다인 경우 많이 볼 수 있다(사양관리 개선으로 막을 수 있다).

2. 점액이 섞여나오는 똥과 다진 고기같은 똥은 세균성 장염으로 카다루를 일으켰거나 아스페루스족의 곰팡이에 의한 원인으로 생기는데 항생제 치료를 요한다.

3. 녹색 똥과 암적색 피똥은 콕시디아나 곰팡이에 의한 것인데 설파제의 치료를 요한다.

4. 황백색과 갈색 똥 혹은 흑녹색 똥은 식물독이나 세균으로 인한 증독에서 오는 것인데 평소 사료에 예방첨가제를 충분히 사용하면 막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똥의 모양과 설사를 겸한 것은 빨리 전염성 하리증을 의심하여 다음과 같은 치료제를 사용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치료편을 참고).

### 3. 해부학적 병상

부검상으로 난소와 신장에 병상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타의 장기에는 육안으로 저명한 병변을 볼 수 없다. 신장은 일반적으로 종대하고 때로는 그 표면에 요산염이 침착한 것을 볼 수 있다.

난소에 있어서는 뉴켓슬이나 전염성 기관지염과 같이 난포의 충혈 또는 출혈, 난황이 병성을

수반하여 연탄을 형성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때로는 난황이 추락으로 저명한 복막염이나 복막·장기면에 저명한 요산염이 침착한 것을 볼 수 있다.

### 4. 본병의 예방 및 치료

병체의 장내용과 하리변 중에는 다량의 병원체가 들어 있어 이에 오염된 사료나 음수를 섭취하면 감염되는 것이다. 또한 회복제는 오랫동안 병독 계대자나 병독 배설자로서 건강한 계군에 새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병의 예방이나 본병의 제압을 기하는 데는 발생지구로부터 닭의 이동 금지, 계사의 소독 철저 등 일반 전염병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본병에 대하여 유효한 예방약은 없고 또한 적절한 치료약도 없다. 다만 본병 억제책으로서 설파다이딘, 설파과와 니딘, 설파베라린 등을 성제 1수당 1일에 100~150mg을 투약하면 근본적 치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유효하다. 그리고 본병 발생 이전에 예방책으로 오레오마이신, 테라마이신 등 사료첨가제를 급여하므로써 본병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테라마이신이나 오레오마이신의 사료첨가량은 사료 1톤당 200g 또한 오레오마이신이나 테라마이신의 가용산은 예방으로 0.06%, 치료로는 0.2% 수용액을 음용시킨다.

또한 예방적으로 2,000배 유산동액이나 4,000배의 증크롭산액, 당밀 2%액 등을 음료수로 급여하면 본병의 예방이 된다.

본병의 예후는 양호한 편이며 폐사하는 예는 적은 편이나 식체를 일으켰을 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예후는 극히 불량해지며 폐사율은 높아진다.

식체에 대한 치료로서 100배 중탄산소다수를 소낭에 주입하여 잘 주물러 주면서 소낭 내용물을 토하게 한다. 이렇게 소낭 세척을 2~3회 되풀이하고서 10cc 증소수와 3cc의 고미징크 합제를 5~10cc 급여하면 식욕도 회복되고 하리증도 막을 수 있다. 또한 소낭 절개수술도 가능하며 여하튼 내용물을 빠른 시간내에 토출시키는 것이 상책이다.